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1.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2017년 2월 ~ 3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호주, 생새우, 수입 제한, 중단등의 키워드가 도출되었음



주요 키워드 :

호주, 생새우, 수입, 중단, 제한, 흰반점병 등



02. 이슈 트렌드 분석

도출된 주요 키워드로 관련 이슈를 재 검색. 이슈 발생 일자에 따라 시계열로 분석하여 핵심 이슈를 선정하였음



“호주, 올 1월 수입 제한한 생새우 일부 품목 수입 허용”

Bigdata Analysis

빅데이터로 보는 월간 동향이슈



03. 비관세장벽 이슈 분석

호주, 올 1월 수입 제한한 생새우 일부 품목 수입 허용

호주 농수산자원부가 새우 흰반점병(WSSV)의 확산을 이유로 올 1월부터 생새우살(prawn meat)과 식품용으로 가공된 생새우의 수입을 중단했었으나, 4월 10일부터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수입이 허용되는 제품은 호주가 원산지이며 동시에 가공을 위해 해외로 수출됐다가 재수입되는 생새우다. 단, 태국에서 가공된 생새우는 제외된다. 한편, 수입 규정으로는 수출 당국의 승인을 받은 시설에서 해당 새우가 가공됐으며, 운송 및 가공, 보관 과정이 위생적인 시설에서 이뤄진 것을 보여주는 보증서와 증명서를 갖춰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생새우 수입 제품은 흰반점병(WSSV)과 노란머리바이러스(YHV)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수출 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 승인은 국제사역사무국(OIE)이 지정한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호주 농수산자원부는 올해 초 호주 퀸즐랜드에서 판매되던 생새우가 흰반점병에 감염된 것을 확인하고 전염병에 대한 우려로 일부 품목(가공식품 재료로 사용되는 생새우)을 제외한 모든 생새우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연간 약 3만 톤의 새우를 수입하는 호주에서 이러한 수입 금지 조치는 새우 관련 식품의 가격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호주 언론인 더오스트레일리안에 따르면, 2016년 1kg당 평균 36달러였던 새우 가격이 2017년 현재 42달러로 상승했으며, 현지 레스토랑도 부족한 공급량으로 새우 관련 메뉴 가격을 올려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향후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지난 1월 6일, 호주 농수산자원부는 생새우에서 발견된 흰반점병이 향후 새우 및 기타 갑각류에 전염될 것을 우려하여 생새우 해외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비너스 조이스 호주 농업장관은 “수입업체들이 검역 시에는 통과될 새우를 사용하고, 통과된 이후에 질병에 노출된 새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호주 정부는 통관검역을 강화할 의지를 표명했고, 이후 생새우 수입제한 조치를 완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인 재개를 실시하겠다고 밝혀 10일부터 일부 품목 수입이 허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앞으로 호주 정부는 해외 농수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하기 전, 미리 관련 규정 및 법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특히 생새우 제품 관련 수입 규제가 완전히 풀리기 전까지 수입제한 조치가 계속 변할 것으로 예상되니 생새우 수출업자들은 항상 이를 주시해야 한다.

본 보고서의 무단전제 및 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